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2006년 세계인권선언 기념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인권단체 및 개인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세계인권선언 기념포상을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 이를 개편한 〈대한민국 인권상〉에서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이 〈대한민국 인권상〉 단체포상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2006년 12월 8일 정부청사에서 실시된 시상식에는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 기념식을 맞아 국무총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방형 정신병원, 인권존중 진료의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은 1990년 가톨릭 수도단체인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에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개방형 정신병원으로 폐쇄적이고 제한된 공간 안에서 치료가 아닌 격리를 하는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오해되던 정신보건 기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을 맞이해 수여되는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의 표창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인간 존엄성이라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 온 교회의 결실을 증명함과 아울러 정신과란 특수성 때문에 오해되던 한국의 정신보건시설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세상과 사회가 변화해도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의 고귀한 정신을 포기하지 않았고, 모진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내며, 모든 인간이 하느님 안에서 귀중하고 평등하다는 그리스도 사랑의 진리를 전파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왔다.

특별히 정신과 병원들의 인권유린이 매스컴을 통하여 사회 전체에 이슈화 되고 있는 이때 정신보건기관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이 수여됨은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이라는 일개 가톨릭 수도회 병원만의 성과가 아니라 그동안 인간 존엄성의 진리를 위해 애써온 가톨릭교회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성과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참된 길임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이다.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은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가 한국 가톨릭교회 모든 신양인들의 인권의 실현을 위한 그리스도 사랑실천에의 지속적 노력과 희생의 결실임을 잊지 않고, 더욱 더 하느님과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standrew.co.kr 참조